

대학생의 감각처리와 성격의 관계

이춘엽*, 정남해**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목적 :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을 사용하여 감각처리와 성격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관련 학과 대학생 1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감각처리는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로 평가하고, 성격은 성격 5요인(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으로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피어슨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외향성과 친화성 성격은 모든 감각처리 유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각추구를 제외한 모든 감각처리 유형과 신경성 성격 간, 감각추구 유형과 개방성 성격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성실성 성격과 등록저하 및 감각예민 유형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1$).

결론 : 대학생의 감각처리와 성격 5요인 평가를 통한 성격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대학생에게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감각처리, 대학생, 성격

1. 서론

감각처리는 신경계가 환경과 신체 내부로부터 감각자극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사람이 환경에 반응하도록 한다(Humphry, 2002). Dunn의 감각처리 모델에서는 감각처리를 감각입력에 대한 신경학적 역치와 행동학적 반응에 따라 등록저하, 감각추구, 감각예민, 감각회피의 4가지 범주로 제시한다(Brown & Dunn, 2002). 등록저하의 특성이 있는 사람은 자극을 놓치고 느리게 반응하

는 특성이 있고, 감각추구의 특성이 있는 사람은 감각 자극을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며, 감각예민의 특성이 있는 사람은 자극을 쉽게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고, 감각회피 특성이 있는 사람은 감각 자극을 예측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Brown & Dunn, 2002; Dunn, 2014). 극단적인 감각처리 유형을 보이는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각자극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어려워, 일반적인 감각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고, 대인관계 및 주의집중 등에 어려움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성격

교신저자: 정남해(whitenam-hae@nate.com)

접수일: 2023.04.10.

|| 심사일: (1차: 2023.05.23. / 2차: 2023.06.08.)

|| 게재확정일: 2023.06.22.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Ayres, 1979; Bodison & Parham, 2018; Brown & Dunn, 2002; Kim & Kim, 2001).

성격은 개인의 감정, 사고, 태도, 인지 방식 등과 관련된 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것이다(Cha, 2013; Lim & Choi, 2013). 성격은 연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성격이론 중 가장 간단하고 설명력이 강한 이론이 특성이론(trait theory)이다. 이는 모든 개인에게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차별적 특성이 모여 인간의 개성을 만든다고 설명한다(Koh, 2013; Lee, 2014).

감각처리와 성격 간의 관련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한 Kim과 Kim(2021)은 높은 민감성이 높은 자극추구 기질과 낮은 연대감 성격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i, Kim, Baek, Hong과 Jung(2015)은 감각예민이 정서적 불안정 및 무반응과 관련이 있고, 감각회피 및 감각추구는 정서적 불안정 및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등록저하는 정서적 불안정 및 공격성, 낮은 자존심, 부정적 자아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각추구 유형은 자존감 및 자신감, 지도력과 관련이 있고(Choi, Kim, & Lee, 2010; Jung, Choi, Lee, Lee, & Kang, 2017), 등록저하 유형은 신경질적 반응, 욕구 억압, 반복 실수, 신경과민, 불쾌감과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Choi, Kim, & Lee, 2010).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성격,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감각처리 등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성격 및 감각처리특성은 대학생활적응과 관련 있는 강력한 변인이다(Crede & Neihorster, 2012; Woo & Choi, 2018). 새롭고 예측이 어려운 환경 및 상황에서 개인은 성격이나 감각처리 등으로 인한 특징적인 행동 패턴이 드러난다(Capsi & Moffitt, 1993),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청소년기에 정해진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대학생이 되면 자유와 책임이 주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하게 된다(Byun, 2009).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에 성격과 감각처리는 더욱 중요하다.

대학생의 감각처리 유형과 성격에 대한 Kim 등(202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각처리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감각추구 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민감성, 자율성 및 인내력이 높고 위험회피 기질이

낮으며, 등록저하 행동이 빈번할수록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성격을 측정할 때에는 어떤 배경 모델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Kim et al., 2022), 다양한 평가도구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성격에 관한 많은 모델 중 성격 5요인은 성격에 대해 잘 정립되고 타당성이 입증된 모델로, 개인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고, 특별한 상황에서 독특한 개인행동의 예측에 도움을 준다(John & Srivastava, 1999; McAdams, 1992; McCrae & Costa, 1987). 성격 5요인은 개인의 성격을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나눈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Ha, 2017; Han, 2018; Nam, 2014; Park, 2019).

감각처리와 성격의 관계를 조사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성격 5요인으로 성격을 평가하고 감각처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각처리 유형과 성격 5요인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 및 경남 지역의 보건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4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G*Power 3.1.9.7로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하여 111명이 산출되었고, 최소 기준을 충족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편의추출과 눈덩이추출법으로 추출하였으며, 연구자가 설명한 연구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만을 포함하였고,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함기준

- (1) 보건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2) 연구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2) 배제기준

- (1) 대학생이 아닌 성인
- (2) 연구 참여에 거부한 자

2. 연구도구

1)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

AASP는 Brown과 Dunn(2002)이 청소년 및 성인이 일상적인 경험에서 일어나는 감각반응을 자가 평가하도록 개발한 평가도구이다. 이는 11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1점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5점은 “항상 그렇게 반응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영역의 문항 수는 미각·후각처리 8문항, 동작처리 8문항, 시각처리 10문항, 촉각처리 11문항, 활동수준 10문항, 청각처리 11문항이며, 감각처리 유형은 4개로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0개 문항은 대상자의 감각처리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역치 수준과 행동 반응에 따라 4개의 사분면(Quadrant)으로 나눈다. 1사분면은 ‘등록저하(low registration)’로 역치는 높고 역치에 대해 수동적 행동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낮은 강도의 자극을 무시하는 행동 특성이 있다. 2사분면의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는 신경학적 역치 수준이 높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한 자극이나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찾는 능동적 행동 특성을 보인다. 3사분면의 ‘감각예민(sensory sensitivity)’은 신경학적 역치가 낮고 수동적 행동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산만하고 감각 자극을 구별하지 못하고 감각자극을 싫어하는 특성으로 구분된다. 4사분면은 낮은 신경학적 역치에 능동적 행동반응을 보이는 ‘감각회피(sensory avoiding)’로, 자극에 대해 피하는 반응을 보인다. 각 4분면의 총점을 구한 후 해당되는 점수의 분포에 따라서 결과를 해석한다. 신뢰도는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4~.76이었고, 타당도에서 AASP 항목 내적 일관성 신뢰계수는 등록저하가 α .82, 감각추구가 α .79, 감각예민이 α .81, 감각회피가 α .66이었다.

2) 성격 5요인(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IPIP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Yoo, Lee와 Ashton(2004)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Ju(2021)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개인의 성격을 5요인으로 나누는데, 외향성, 신경성, 친화성, 개방성, 성실성이다. 외향성은 타인과 상호작용하

기 위해 대인관계 자극을 추구하는 성격 특성이고, 신경성은 개인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수준과 관련된 성격 특성이다. 친화성은 타인에 대해 친근하고 협력적인 성향이고 개방성은 새로운 외부 자극과 변화, 다양성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 또한 성실성은 자기규제가 철저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과지향적인 성향의 특성이다. 성격 5요인은 각각 10문항이며,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은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 특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2021)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신경성은 .86, 외향성은 .91, 개방성은 .83, 친화성은 .86, 성실성은 .8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감각처리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보건관련 학과의 교수 3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자만 참여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응답은 익명화하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 최초 157명이 온라인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하고 총 149부를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감각처리 유형 및 성격 5요인에 대한 분석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감각처리 유형과 성격 5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0.3 미만이면 약한 관계를, 0.3~0.6 사이이면 중간 정도의 관계를, 0.6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를 의미하였다(Lee, 2015).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의 평균

은 22.53세였고, 성별은 여자가 54.4%로 남자보다 많았다. 학년은 3학년(42.3%), 2학년(36.9%), 1학년(20.8%) 순으로 많았다. 학과는 작업치료학과(45.0%), 물리치료학과(34.2%), 간호학과(20.8%) 순으로 많았다. 학점은 2.9점 이하(24.8%), 3.5~3.9점(24.2%), 3.0~3.4점(17.4%), 4.0이상(12.8%)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감각처리 유형

감각처리 유형의 수준은 등록저하(46.3%), 감각예민(61.1%), 감각회피(61.1%) 모두 대부분의 사람과 유사한 정도가 가장 많았고, 감각추구에서만 대부분의 사람보다 적은 수준이 61.1%로 가장 많았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9)

Variable	Frequency(%)	Mean ± Standard deviation (min-max)
Age		22.53 ± 2.06 (20-29)
Gender	Male	68(45.6)
	Female	81(54.4)
School year	1st	31(20.8)
	2nd	55(36.9)
	3rd	63(42.3)
Department	Occupational therapy	67(45.0)
	Physical therapy	51(34.2)
	Nursing	31(20.8)
Grade point average	≤2.9	37(24.8)
	3.0~3.4	26(17.4)
	3.5~3.9	36(24.2)
	≥4.0	19(12.8)
	Not applicable (1st grade)	31(20.8)

Table 2.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Frequency(%)	Mean ± Standard deviation
Low registration	Much less than most people	9(6.0)	30.49 ± 9.27
	Less than most people	48(32.2)	
	Similar to most people	69(46.3)	
	More than most people	18(12.1)	
	Much more than most people	5(3.4)	
Sensory seeking	Much less than most people	20(13.4)	35.91 ± 8.25
	Less than most people	91(61.1)	
	Similar to most people	38(25.5)	
AASP Sensory sensitivity	Much less than most people	3(2.0)	34.64 ± 9.43
	Less than most people	18(12.1)	
	Similar to most people	91(61.1)	
	More than most people	23(15.4)	
	Much more than most people	14(9.4)	
Sensory avoiding	Much less than most people	1(0.7)	35.89 ± 9.78
	Less than most people	15(10.1)	
	Similar to most people	91(61.1)	
	More than most people	24(16.1)	
	Much more than most people	18(12.1)	

AASP: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3. 대상자의 성격 요인

성격 요인의 수준은 친화성(34.91), 성실성(32.42), 개방성(31.46), 외향성(30.03), 신경성(27.54) 순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학생의 감각처리와 성격의 관계

대학생의 성격 중 외향성과 친화성은 모든 감각처리 유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중 감각추구만 양의 상관관계를, 이외의 모든 유형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외향성과 감각회피 및 감각추구, 친화성과 감각회피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외에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신경성은 감각추구를 제외한 모든 감각처리 유형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중 등록저하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대로 개방성은 감각추구 유형에서만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실성은 등록저하와 감각예민 유형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등록저하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감각예민과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 .01$, Table 4).

IV. 고찰

대학생이 되면 학업에 대한 요구와 자율성이 달라지고, 대인관계 및 진로개발 등에서 자발성과 적극성이 요구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Lee, Shin, Yoo, & Lee, 2008). 대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여러 방면에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각처리의 각 유형과 성격 5요인 간에 관련성이 있는 변인들을 확인하여, 중재와 보완이 필요한 감각처리 및 성격 유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감각처리와 성격의 관계에서 성격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 5요인 모델을 활용하였다. 감각처리와 성격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성격평가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Questionnaire; PAQ)와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로 성격 요인을 확인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Choi et al., 2015; Kim et al., 2022). PAQ는 의존성, 공격성, 낮은 자존심, 정서적 무반응, 부정적 자아적절감, 정서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을 측정하는 것으로, 심리적 적응이 부정적인지를 확인하는 도구

Table 3. Personality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Mean ± Standard deviation
IPIP	Neuroticism	27.54 ± 7.95
	Extraversion	30.03 ± 7.40
	Openness to experience	31.46 ± 5.52
	Agreeableness	34.91 ± 6.34
	Conscientiousness	32.42 ± 6.10

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ensory processing and personality

Variable	Categories	AASP			
		Sensation avoiding	Sensation seeking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IPIP	Neuroticism	.233**	.093	.351**	.295**
	Extraversion	-.369**	.341**	-.214**	-.214**
	Openness to experience	-.052	.261**	-.093	-.046
	Agreeableness	-.327**	.197**	-.220**	-.211**
	Conscientiousness	-.118	.005	-.352**	-.228**

* $p < .05$, ** $p < .01$, AASP: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이다. TCI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성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포괄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성격을 확인하고자 성격 5요인 모델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격 중 외향성과 친화성은 감각추구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외향성 간에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친화성 간에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개방성은 감각추구 유형에서만 약한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각추구 유형은 높은 역치와 능동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유형이다(Kamath et al., 2020).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새롭고 강한 자극을 추구하며,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 작업을 즐겨 한다(Jeong & Fishbein, 2007; Youk, 2022). 한편 외향성은 사고성, 긍정적인 감정 및 활기찬 행동과 관련된 특성이고(Costa & McCrae, 1992), 친화성은 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Wilmot & Ones, 2022). 개방성은 자율적인 사고를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것으로(Smith et al., 2019), LePine, Colquitt와 Erez(2000)는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개방성의 성격 특성은 매우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성격 특성이다. 감각추구 유형의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므로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성격 특성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외향성 성격과 감각추구 간에 관련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Youk(2022)의 연구에서도 감각처리 유형 중 감각추구는 유일하게 대인관계 유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성실성 성격은 등록저하와 중간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감각예민과 약한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저하 유형은 높은 역치와 수동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감각예민 유형은 낮은 역치와 수동적인 반응을 나타낸다(Kamath et al., 2020). 두 유형은 역치는 다르지만, 수동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한편 성실성은 의무감, 끈기,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특징인 성격이며, 이러한 성격 유형의 사람은 조직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효율적인 특성을 보인다(Wilmot & Ones, 2022).

Sutin, Stephan과 Terracciano(2018)에 따르면, 성실성 성격 특성을 지닌 사람은 더 능동적이고 건강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참여가 많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등록저하와 감각예민은 수동적인 성향인 것에 반해 성실성은 능동적인 성향이므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며, 등록저하에서 관련성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성격 유형 중 신경성은 감각추구를 제외한 모든 감각처리 유형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등록저하와 중간 정도의 관계를, 감각예민 및 감각회피와 약한 정도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성은 위협, 좌절 또는 상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정서적 불안정 등과 관련된 특성이다(Costa & McCrae, 1992). 한편 감각예민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장애와 관련되었고(Neal, Edelman, & Glachan, 2002), 등록저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삶의 균형이 낮았으며(Kim et al., 2018), 감각회피는 예상하지 못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공격적이거나 쉽게 흥분하여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Lee, 2015). 이와 같이 각 감각처리 유형의 성향이 높았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가 신경성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되며, 신경성 성격과 등록저하 간에 관련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여 대상자가 가독성의 문제로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온라인 설문 작성 시 한 눈에 한 문항씩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가독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감각처리 유형과 성격 특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대학생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성격의 보완으로 해결할지, 감각처리의 증재로 접근할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건관련 학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각처리와 성격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감각추구는 적극적인 행동과 관련된 성격인 외향성, 친

화성, 개방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각회피, 등록저하, 감각예민은 신경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외향성 및 친화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긍정적인 성격 형성을 위해서는 감각추구 성향을 촉진하는 중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감각처리와 성격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대학생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룰 수 있는 변인으로 감각처리와 성격요인을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 문헌

- Ayres, A. J. (1979). *Sensory integration and child*.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odison, S. C., & Parham, L. D. (2018). Specific sensory techniques and sensory environmental modification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sensory integration difficulties: A systema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2*(1), 7201190040p1-7201190040p11. doi:10.5014/ajot.2018.029413
- Brown, C., & Dunn, W. (2002). *The adult sensory profile*.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Byun, K. H. (2009). *A study of the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for college students from local campus to adapt themselves to campus life*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Capsi, A., & Moffitt, T. E. (1993). When do individual differences matter? A paradoxical theory of personality coherence. *Psychological Inquiry, 4*(4), 247-271. doi:10.1207/s15327965pli0404_1
- Cha, N. H. (2013). Learning ability and stress by character typ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2), 6257-6264. doi:10.5762/KAIS.2013.14.12.6257
- Choi, E. S., Kim, Y. S., Baek, D. R., Hong, K. H., & Jung, H. R.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feature and personality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3*(4), 35-45. doi:10.14519/jksot.2015.23.4.03
- Choi, J. D., Kim, J. K., & Lee, T. Y. (2010).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s and personalit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8*(1), 23-30.
- Costa,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orporated.
- Crede, M., & Neihorster, S. (2012). Adjustment to college as measured by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 quantitative review of it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4*(1), 133-165.
- Dunn, W. (2014). *Sensory profile 2 user's manual*. Bloomington, MN: Pearson.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Tilburg, The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Press.
- Ha, M. S.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big-five personal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dership in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Education Inquiry, 35*(2), 89-118. doi:10.22327/kei.2017.35.2.089
- Han, S. J. (2018). The effect of the personality 5 traits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method of stress coping.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15*(2), 61-78.
- Humphry, R. (2002). Young children's occupations: Explicating the dynamics of developmental processe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6*(2), 171-179. doi:10.5014/ajot.56.2.171
- Jeong, S. H., & Fishbein, M. (2007). Predictors of

- multitasking with media: Media factors and audience factors. *Media Psychology*, 10(3), 364–384. doi:10.1080/15213260701532948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02–138). New York: Guilford.
- Ju, J. S. (2021). *Moderating effects of big 5 personality traits on the relations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Jung, S. M., Choi, W. H., Lee, J. Y., Lee, S. A., & Kang, E. Y. (2017). The correlation of sensory processing type, school record and self-esteem in the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1(6), 247–253. doi:10.21184/jkeia.2017.08.11.6.247
- Kamath, M. S., Dahm, C. R., Tucker, J. R., Huang-Pollock, C. L., Etter, N. M., & Neely, K. A. (2020). Sensory profiles in adults with and without ADHD.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04, 103696. doi:10.1016/j.ridd.2020.103696
- Kim, E. Y., Lee, S. W., Kim, Y., Lee, S. H., Kim, H. J., & Gwon, J. A. (2018).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Korean version of life balance inventory (K-LBI) and relationship between life balance and sensory proces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6(2), 36–49. doi:10.18064/JKASI.2018.16.2.036
- Kim, M. S., & Kim, T. R. (2001). A comparison of the sensory processing skills o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9(1), 1–10.
- Kim, S. K., & Kim, E. Y. (2021). Effect of early childhood sensory processing on temperament and character trai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9(3), 13–21. doi:10.18064/JKASI.2021.19.3.13
- Kim, S. K., Kang, C. M., Kwon, J. H., Kim, M. K., Kim, S. H., Cho, Y. J., & Kim, E. Y. (2022). Effect of sensory processing patterns on temperament and character traits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3), 38–47. doi:10.18064/JKASI.2022.20.3.38
- Koh, D. W. (2013). *Tourism psychology*. Seoul, Korea: Daewangsa.
- Lee, G. C. (2015). *Statistics for health care*. Seoul, Korea: Hyunmoonsa.
- Lee, H. I. (2014). *Psychology and behavior of service customers*. Seoul, Korea: Kimunsa.
- Lee, K. A., Shin, H. L., Yoo, N. H., & Lee, K. H. (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inventory-short for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739–754. doi:10.15703/kjc.9.2.200806.739
- Lee, S. H. (2015). *The effect of sensory processing on social skills in school-age children with ADH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Seongnam.
- LePine, J., Colquitt, J., & Erez, A. (2000). Adaptability to changing task contexts: Effects of general cognitive ability,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 *Journal of Personnel Psychology*, 53(3), 563–593. doi:10.1111/j.1744-6570.2000.tb00214.x
- Lim, K. O., & Choi, Y. T. (2013).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stress management techniques and their effect on academic burnout: Based on the MBTI personality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8(5), 785–790. doi:10.13067/JKIECS.2013.8.5.785
- McAdams, D. P. (1992). The Five-factor model in personality: A critical 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60(2), 329–361. doi:10.1111/j.1467-6494.1992.tb00976.x

-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90. doi:10.1037/0022-3514.52.1.81
- Nam, J. H. (2014). *The relations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the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Kyungsan.
- Neal, J. A., Edelman, R. F., & Glachan, M. (2002). Behavioural inhibition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s there a specific relationship with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4), 361–374. doi:10.1348/014466502760387489
- Park, J. Y. (2019).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big-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reativity convergence competency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8), 371–380. doi:10.5762/KAIS.2019.20.8.371
- Smith, M. M., Sherry, S. B., Vidovic, V., Saklofske, D. H., Stoeber, J., & Benoit, A. (2019). Perfectionism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3*(4), 367–390. doi:10.1177/1088868318814973
- Sutin, A. R., Stephan, Y., & Terracciano, A. (2018). Facets of conscientiousness and objective markers of health status. *Psychology and Health*, *33*(9), 1100–1115. doi:10.1080/08870446.2018.1464165
- Wilmot, M. P., & Ones, D. S. (2022). Agreeableness and its consequences: A quantitative review of meta-analytic finding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6*(3), 242–280. doi:10.1177/10888683211073007
- Woo, H. S., & Choi, Y. I. (2018). The effects of sensory processing types on the psychosocial factors of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819–826. doi:10.21742/AJMAHS.2018.09.71
- Yoo, T. Y., Lee, K. B., & Ashton, M.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8*(3), 61–75.
- Youk, E. H. (2022). The influence of game usage by genre on game addi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nsory processing featur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2*(5), 115–128. doi:10.7583/JKGS.2022.22.5.115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and Personality in College Students

Lee, Chunyeop*, Ph.D., O.T., Jung, Namhae**,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eo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and personality in college students by using five personality factors.

Methods : The study was conducted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2022 with 149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tudies. Sensory processing was evaluated using the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 and personality was evaluated using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was used.

Results : Extraversion and agreeablenes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sensory processing types. Neuroticism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types of sensory processing other than sensory seeking, while openness to experie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nsory seeking. Conscientiousnes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ow registration and sensory sensitivity type ($p < .01$).

Conclusion : This study found a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type and personality type through an evaluation of five personality in college students.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to find solutions to various problems that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ge student, Personality, Sensory processing